



소중한 한표 위한 투표행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광주중학교에 마련된 금호2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서 있다.

/김영근 기자

“대한민국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길”



●곡성고3학년 김민석군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행사하게 돼 책임감을 갖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폈다. 제22대 국회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입법부로서 책임을 다해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진로 다양화와 그에 걸맞은 교육, 청소년 인권 강화도 필요하다. 잦아들지 않는 기후변화 문제와 이에 따른 변별력 문제 등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은 특히 장기적인 안목 아래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2대 국회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고민하고 정책을 입안해 일선 학교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장애인 차별없는 사회 만들어야”



●배영준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상인활동가

제22대 국회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장애인들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고 정말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장애인들을 대표해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의원들 또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현실이 바뀌길 바라는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자리인 만큼 당사자들의 고충을 동료 의원들에게 여과없이 보여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데 어우러져 사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22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광주 일자리 창출 최선 다해야”



●양진석 광주경역지총협회장

올해도 고금리,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미래차 국가산단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AI융복합지구 등의 국가산단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지하철도2호선의 적시 예산 반영으로 공사 중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조속 추진, 지원해 동서간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역 경제 불균형, 수도권 편중 현상 해소에 일조해야 한다. 또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무안군의 발전 방향 제시와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

“민생·경제 우선시하는 국회 기대”



●임정현(조선대 졸업 예정자)

제22대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 싸움과 말꼬리 잡기식 네거티브에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말 실수와 논점을 잘못 찾은 행보, 야당의 계과 갈등과 후보 자질 논란은 이번 선거의 뜨거운 감자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도를 느끼게 하며 짜증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 속에 탄생하는 22대 국회는 단순한 메시지 전쟁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에 대한 여야 가릴 것 없는 날선 비판과 견제는 물론, 물가 안정 등 민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선거철마다 젊은 세대를 위한다 하고선, 당선 후 모른 채 하기 일수였던 '청년의 도구화'도 멈춰야 한다.

“지역 의제 함께 의논·반영했으면”



●기유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제22대 국회는 우리 사회와 지역의 의제들을 지역 공동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치적으로 반영해 나가길 바란다. 정권 평가는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이지만 이번 선거만큼 '정권 심판'이나 '안정'이나를 놓고 공방이 심했던 적은 없었다. 아쉬운 점은 이런 격화된 대결 분위기에서 사라져버린 것들이다. 대표자를 뽑는 것대는 오직 상대방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단순화됐고, 공직자가 지켜야 할 도덕성도, 국민을 위한 정책 생산 및 실행 능력도 이 광풍 앞에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22대 국회는 이런 우리 속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국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래차 기술 반영 정책사업 추진”



●정관중 기아오트랜드광주파트장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주길 바란다. 광주지역 당선자들이 지역 경제를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충전인프라 구축 등 미래차 기술 동향이 반영된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당선자들이 정부·기관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생산 중심도시 광주'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주시민의 숙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결실을 맺어 넓은 공항 부지를 이용, 시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한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 힘쓰자”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선거 기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더불어 향후 4년간 국민을 위해 활동할 제22대 국회를 응원한다. 22대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한목소리를 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당부한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다수가 지속해서 약속했지만 여전히 미완의 상태다. 최소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사안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엄연한 방기(放棄)로 밖에 볼 수 없다. 5·18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헌법전문 수록은 더는 미뤄져서는 안될 우리 시대의 과제다. 이제는 '진상 규명'과 '헌법전문 수록'이 특별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인권·복지 보장 성주류화 정책 확산”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번 총선은 국정의 중간평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 간 성평등 및 돌봄민주주의는 퇴행을 넘어 파행을 겪어왔다. 제22대 국회는 성평등 및 돌봄민주주의 실현의 컨트롤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범 부처의 성주류화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헌법과 법령, 법규의 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 및 예산,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음을 유념하면서 의정 활동에 임해주길 바란다.

“예술계 역동적 발전 이끌어주길”



●고차분 서양화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 지역의 민생 안정을 비롯해 여왕 광주라는 말에 걸맞게 지역 예술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광주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곳이지만 광주지역 갤러리 수준은 전국 광역시 중 활동성이 가장 적다. 지역 미술가를 견인할 만한 대표적인 갤러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중앙 화단에 이름을 알리기 어렵다는 것은 곧 해외 미술시장 진출에도 한계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전남 작가들, 그리고 지역 미술계가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

“비틀어진 외교 바로 세워야”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윤석열 정권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나라의 공간이 무너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한없이 추락하고 어렵게 피땀으로 쌓은 민주주의 토대도 허물어지고 있다. 외교 안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영등하게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제3차 변제 발표에서 보듯 정상적 나라로 볼 수 없다. 제22대 국회는 비틀어진 외교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하는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으로 쫓겨나고 당당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신산업 육성 경제공약 실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자들이 선거 기간 보여줬던 지역 사랑의 열정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군 공항 이전,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 시켰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실천돼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광주는 군·민간공항 이전, 인공지능 산업육성법 제정 및 실증밸리 조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달빛철도 조기건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과제를 반드시 조기 실천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이 정신을 발휘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생산활동에 매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법 근거 마련”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펼쳐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기원한다. 민선 2기 광주시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선순환적 구조 완성과 스포츠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체육회가 재정 안정화를 통해 민선체육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길 요청한다. 또한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2028광주·대구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복합체육시설인 스포츠컴플렉스 건립과 체육시설 기능 개선 등 체육시설인프라 확충 사업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